

[새 사상 새 로정 인솔]

새 문화사명 짚어지고 중화문화를 새롭게 빛내자

문화는 나라의 근본과 운명에 관계된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분발진취해 우리 이 시대만의 신문화를 힘써 창조하며 중화민족의 현대문명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문화사명을 더욱 잘 짚어지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창조적인 발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변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업에 강대한 정진력을 부여하고 있다.

북경의 중추선을 따라 곧게 북으로 가면 연산기술에 자리한, 기세가 방대한 중국국가판본관 중앙본관 건물을 만날 수 있다. 2023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을 시찰할 때 판본관을 건설하는 초심은 바로 수장이라며 우리 이 역사단계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경전과 자료들을 수집해 잘 보호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중단된 적이 없는 문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단계로 기증받은 판본들이 최근 수장되면서 국가판본관의 판본 자원은 더 풍부해졌다. 중국국가판본관 류성용 관장은 '본관 하나 분관 셋'으로 구성된 국가판본관은 현재 실물 판본 3,200여만권 /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본관의 수장 실물판본은 1,900여만권 / 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국가판본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본관 하나 분관 셋' 구도의 수장 디지털 자원은 약 880TB에 달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문명의 전승과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다. 2023년 6월 2일,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기점에서 문화변명과 문화강국 건설, 중화민족 현대문명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우리 새시대의 새로운 문화사명이라고 강조했다.

5월 18일, 중앙방송총국이 교육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2024 중국시사(詩詞)대회'가 원만히 끝났다. 근년래 '중국시사대회', '경전 속 중국'을 비롯한 많은 전통문



학생들이 섬서성도서관에서 '한자'의 기묘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중국문화보

화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모으며 주목받는 시대적 문화 흐름으로 되었다. 또 '오직 이런 청록'과 같은 무대예술 작품들이 인터넷에서 크게 흥행하면서 중화 전통문화가 새시대에서 활력을 뽐으며 꾸준히 발전하는 기상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

중국무용가협회 주석 풍쌍백은 전반 중국의 청년세대 감독들이 지금 힘찬 자신감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쌍백은 청년감독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경의심과 심층 발굴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체계를 무대예술의 창조적 힘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대해 아주 호뭇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지에서는 현지의 특색 문화자원에 입각해 전통문화의 내포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등 새 기술

은 가속도로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전통문화에 시대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얼마전 개최된 중국수학(游学) 려행대회에서는 구양수, 양만리 등 려릉(庐陵) 선현들의 이미지로 설계된 디지털 가상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선을 보이며 전문 설비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강서 모 문화관광산업발전유한회사의 부총경리 강진은 앞으로 소통이 가능한 이런 설비들을 시 여러 풍경구에 설치해 관람객들이 풍경구에서 가상세계의 '려릉 천단' 이상들과 만나보게 함으로써 유일무이한 몰입식 체험 관광으로 려릉 문화의 매력을 진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 공공문화서비스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문화 장소가 늘어나고 질도 많이 제고되면서 인민대중들에게 날로 더 많은 문화활동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을 예로 들면 2023년 우리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박물관수는 268 개에 달하고 박물관 총수는 2012년의 3,866 개에서 6,833 개로 늘어 문화 공급이 날로 풍부해지고 있다.

국가문물국 부국장 라문리는 박물관의 교육, 연구, 전시, 전파 기능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문명간 상호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데서 큰 역할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고 박물관을 사랑함에 따라 박물관도 이미 새시대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 속에 융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인민방송

우리 나라, 영국 MI6 중대 간첩사건 적발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치밀한 수사를 거쳐 영국 비밀정보국(MI6)이 우리측 모 중앙 국가기관 직원인 왕씨, 주씨 부부를 포섭한 중대한 간첩사건을 적발했다고 국가안전부가 3일 밝혔다.

2015년, 왕씨는 중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류학을 신청했다. MI6은 그의 핵심 비밀 직위에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신청 승인을 했다. 왕씨가 영국에 도착한 후 MI6은 그에게 특별히 관계자를 붙여 식사, 회식, 견학 등 특수 배려를 주선하며 기회를 타 그의 성격적 약점과 취미 욕구를 파악했다.

왕씨의 강한 금전적 욕구를 파악한 MI6은 관계자를 교정에 파견해 학우의 명의로 그를 만나게 한 후 자문 아르바이트란 일자리를 알선하며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금전적인 유혹에 빠진 왕씨는 유상 자문을 약속했다.

영국측은 공개 연구 프로젝트 명목으로 점차 우리 중앙 국가기관 내부의 핵심 상황을 캐내고는 정상 자문료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그에게 지불하였다. 왕씨는 다소 눈치를 채긴 했지만 거액의 자금 유혹에 넘어가 영국에 이른바 '자문' 서비스를

계속했다.

얼마후 영국측은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여 MI6 직원을 보내 왕씨에게 신분을 밝히고 영국정부를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며 더 높은 보수와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왕씨는 사적인 리익에 넘어가 영국측의 요구에 응하고 첩보 절차를 수행했다.

MI6은 왕씨에게 전문적인 간첩 훈련을 실시하고 귀국시켜 잠복하여 중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왕씨의 안내 주씨도 모 핵심단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MI6은 왕씨가 뒷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수차 안해도 함께 끌어들일 것을 요구하며 두배의 보수를 약속했다. 왕씨는 잠간 망설이긴 했지만 영국측의 반복적인 설득과 유혹 심지어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동의했다. 주씨는 왕씨의 집요한 설득에 끝내 영국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국가안전기관은 치밀한 수사와 탄탄한 증거를 파악한 후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왕씨 부부를 법에 따라 심사하고 진상을 파헤쳤다.

/ 중앙인민방송

향향—상해·북경 야간 고속침대열차 운영

향향 홍감(紅艷)역과 상해·북경 사이를 오가는 일반열차를 야간 고속침대열차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중국국가철도그룹이 4일 밝혔다.

이날 향향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는 해당 열차가 향향이 중국의 발전 흐름에 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열차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매주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향향

서구통역과 상해 홍교·북경 서역 사이를 오가게 된다.

리가초는 이번 개편으로 좌석수가 600석 이상으로 늘고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내지와 인적·경제구역·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화넷

세르비아 인민폐청산결제은행 정식 운영



5월 8일 열린 중국은행 세르비아 인민폐청산결제은행 현판식 현장 / 신화넷

중국은행 세르비아 인민폐청산결제은행이 3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첫 크로스보더(跨境) 인민폐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고 이날 중국은행이 밝혔다.

관련 소개에 따르면 인민폐 송금 업무는 하강(河鋼) 그룹(세르비아) 스테데레보 제철공장이 세르비아에서 중국 하북성에 인민폐 200만 원을 송금하며 시작되었다.

2017년 설립된 중국은행(세르비아) 유한회사는 현지 인민폐 업무 주관 은행이다. 2023년 12월, 중국인

민은행이 중국은행(세르비아) 유한회사를 세르비아인민폐청산결제은행으로 승인한 이후 5월 8일 중국은행 세르비아 인민폐청산결제은행은 정식 출범을 알렸다.

중국은행은 글로벌 종합 금융기관으로서 인민폐 크로스보더 류통의 주요 통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행은 938조 원 이상의 크로스보더 인민폐 청산결제업무를 처리했다.

/ 신화넷

오문, 내지 출경여행의 인기목적지로



5월 1일, 여행객들이 오문 구정부 앞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신화넷

옛날 동안 오문 코타이(路砦城) 지역에 위치한 은하에능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문 최대 실내 종합예술경기장인 이곳에선 국제배구연맹 2024년 녀자배구리그(女排联赛)가 열렸다. 해내의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오문의 뜨거운 관광 열풍도 만끽했다.

중국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향과 오문에 대한

'개인여행' 목적의 방문을 허가하는 도시가 확대되고 통행증·통관 편리화 및 '오문 차량의 내지 출입' 등 정책이 시행되면서 올 1분기 오문을 방문한 여행객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 오문은 처음으로 중국 내지 출경여행객이 가장 만족하는 목적지로 되었다.

오문이 해내의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그 배경으로 '옛것'과 '새것'의 만남, '중국과 서양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오문력사지구'는 지난 2005년 제 29회 세계문화유산조직위원회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래된 구도심에 준비하게 늘어난 마각묘(妈阁庙), 향무국 청사, 정씨네 집, 민정총서 청사, 로씨네 집, 성바울성당 유적(玫瑰堂), 대삼바패방, 대포대 등 20곳이 넘는 건축물은 진중한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문의 활기도 느낄 수 있다. 오문은 밤이 되면 코타이거리에 화려한 가로등이 켜지고 오문의 대표적 호텔들이 찬란한 조명을 빛내며 변화한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호텔을 포함한 상업종합체뿐만 아니라 수상락원, 미디어아트(光影秀), 해리포터전시회, 미식여행 등을 '원스톱(一站式)'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오문에는 중국과 서양의 다원화된 문화가 공존한다. 중화문명의 진수를 간직한 마각묘, 관음당, 련보묘 등 중국식 사당과 더불어 흥환포은 주택식 박물관, 구정부 앞 광장 등 이색적인 서양식 건물이 어우러져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문민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준다.

전시회산업은 오문특별행정구가 주력하는 중점산업중의 하나이다. 대표적 전시박람회 개최 장소로는 금광회의전람중심을 꼽을 수 있다. 얼마전 BEYOND 국제과학기술혁신박람회에 참가했던 왕녀사는 "박람회를 둘러보는 동시에 쇼핑·료리·오락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면서 "무척 편리하고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오문시립대학 국제관광·관리학원 집행부원장 리새는 ▷풍부한 관광자원 ▷수준 높은 서비스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여행환경 ▷우호적이고 온화한 주민 ▷다채로운 행사 등이 여행객 유치에 성공한 오문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 신화넷



벨지오 브류즈레트(布吕热莱特)에 위치한 천당동물원이 2일 참대곰 '천보'(天宝)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2016년 6월 '호호'(好好)가 낳은 수컷 새끼참대곰 천보는 벨지오에서 태어난 첫 참대곰이다. 사진은 이날 동물원을 찾은 어린이가 게시판에 천보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